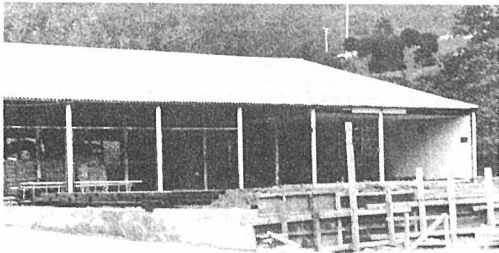


용인, 건설부분 합의사항 이행부진

인문사회관 간이식당 착공 못해 대학당국, 적극적 태도로 임해야



용인 캠퍼스 복지 후생관이 임시방편적으로 신관건이 아닌 승차장 건물에 중축되고 있다. 이는 대학당국의 실속없는 학교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학기 들어 용인캠퍼스에는 '인문사회관 간이식당 설치 공사' 및 '복지후생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인문사회관 간이식당 공사는 인문사회관에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어문관 식당 이용에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하기로 지난 학기 학자합 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학기 개강초까지 완

공하기로 되어 있던 이번 공사가 대학당국에서 세척을 배관 공사들의 문제를 제기하며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당국에서 제시한 공사 문제점은 식당에서 발생하는 각종음식물 찌꺼기를 세척하는 데 필요한 배관공사가 필요하며, 이 공사는 건물앞면의 화장실과 앞광장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절단 및 목공조 알라지 길이 70m, 깊이 1m정도를 파내는 토목공사가 학기중에는

소음이 커서 학생들의 면학환경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한 주방시설의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하며 주방을 가스화장 시설 설치 하기를 받기위해 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협동조합 조항장 김운기(동학·아프리카)군은 "배관 공사의 경우 방학 기간동안 실시했다면 벌써 마칠수 있었다"며 "근본적

으로 시간강사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대학당국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했다.

현재 대학당국에서 추진중인 간이식당 구상은 김박, 우동, 정리만 등을 판매하는 스텝코너 정도이며 세척을 처리하는 인근 화장실 개수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보면 서로 결론적으로 이번 공사의 근본 문제점은 대학당국이 간이식당 설치의 문제를 알고도 학자합의사항에 합의했다는 점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보다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복지후생관 건설 공사는 기존 승차장 건물을 확장을 기점으로 하여 9월 중순 완공에 갈되며, 완공이 이 건물에는 기존 매점, 매점 옆에 약점, 이매점, 점점부 매점이 이전입주하며, 스텝코너, 미술실, 일상 생활용품 등이 신설 입주한다.

그러나, 공간밀집현상과 깨끗하고 편리한 복지후생관 확보를 위해 위치 이전 및 신관 건설이 시급하다.

영자신문, 기자발령 성적제한에 진통

학생기자, 학안대 차원의 기자해임 부담 주장 교수, "학생신문이므로 당연한 적용" 교수

본교 영자신문사(The Ar-

뉴스) 총 장
제목:외대신문사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1. 회의일시: 1992. 2. 25(화) 11:00~13:10
2. 장 소: 본교 소회의실
3. 참석인원: 총 27명 중 23명 참석 (별지:명단참조)
4. 회의안건
- 1) 학생기자 임명에 따른 제한학생 설정에 관한 건
- 2) 학생기자 임명시 성적 기준은 전(前)학기 평균폭점 2.00 이상인 자로 한다.
- 3) 92학년도 제 1학기 적용기준은 91학년도 2학기 평점 1.50 이상인 자로 한다.

1992. 2. 25

외대신문사 운영위원회

이기에 전에 학생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자가 이렇듯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서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이재 (31) 서울캠퍼스 학생회장실에서) 학생기자, 기자 임명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신진수(동국, 제4)군은 성적의 이유를 들어 "학내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학생기자들을 단지 학생신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징계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교육적인 입장에서 더욱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자들의 해임과 관련된 사항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사단 소속은 더욱 어려워졌고, 영자신문사 기자들의 행방이 늦추어 9월 신문발행이 어렵게됐다.

기 시작했다. 이의 설치와 운영을 살펴보면 제10조 1항에 '신문사 운영위원회는 발행인, 편집인, 주간, 교내 각 처장, 이설위원 및 신문과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실무는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자들의 권익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그동안 학생기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실정에서 영자신문이 이러한 관행과 연관되어 학생

기자들은 기자들의 입면이 단지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기삼군은 "학생기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기자들에게도 적용하는 '학점 불합격' 강요 원칙을 무시하고 기자들이 전문에 해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강박적 주장이라는 이를 "기자

본교, 신임교수 소개

본교는 지난 8월21일(금)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임교수 채용을 결정했다.

9월1일(화)자로 발령이 나게 되는 11명의 신임교수는 다음과 같다.

- ▲사학과: 이영학(54년생) 한국대학교 졸업,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 ▲문리학과: 권남익(56년생) 서울대학교 졸업, 문학박사, 버지니아대학교 졸업
- ▲통계학과: 박태성(62년생) 수리통계 전공, 이학박사, 미시간대학교 졸업
- ▲노이과: 마리아나 미하일로브나 텔기안(Tatiana)
- ▲민간외과: 양하수(54년생) 31년생) 중국어문학 전공, 석사, 북경대학교 졸업
- ▲마인어과: 존 자흐론 이스탄비(Kun Zachron Istanti 55년생) 인도네시아문학 전공, 석사, 인도네시아 가자마라대학교 졸업
- ▲마인어과: 무함마드 하미디(Muhammad Hamidi 58년생)



이영학 <사학과>

인도네시아어학 전공, 석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졸업
▲태국어과: 송자이 콘피판(Songchai Koonphiphat 46년생) 교육학 전공, 석사, 시카고대학교 졸업
▲이러니어: 무함마드 트리비(S. Muhammad Torabi 49년생) 케르타사라이 전공, 박사, 테헤란대학교 졸업



권남익 <문리학과>

▲인도어과: 제진기 툴라잠파(Cingenti Tulazampa 37년생) 인도어학 전공, 박사, 안드라대학교 졸업
본보 8월 25일자 '이동수'는 35호를 35호로, 6면 '일수경' 동인 문학상' 광고는 제3회를 제4호로 바르겠습니다.

졸준위, 취업관련 설문조사

취업기구 개편·정보전산화 절실

본교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는 지난 6월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졸업생을 위한 설문조사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취업현실에 직면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천7명(서울 1천20명, 용인 987명)이 참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취업업무의 일반적 사항에 관해 △취업정보의 전산망구성에 대해 △취업업무 체계 및 기구에 관해 △취업취업에 대해 등 크게 4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총 23 문항을 내용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학생들은 학생처에서 취업정보를 통해 관리되는 현재 운영체제에서 정보량이 부족하고 정보전달 속도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에 관해서는 전제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해 학생들이 취업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 대학에 비해 본교의 취업업무체제가 크게 불만족하고 있어 학생처장이나 아닌 독자적인 취업기구 개편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외대학보 제48기 수습기자 모집

- 민족자주언론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외대학보의 새 일꾼을 찾습니다.
- ▲대상: 서울·용인 캠퍼스 92학번
 - ▲신청일시: 9월 7일(월)~8일(화)
 - ▲신청방법: 1) 17일(1차)의 (자기소개서 쓰기) 2) 8일(2차) 면접
 - ▲모집부서: 일반(대·사·학·여·문·화부)·사·전·민·화기
 - ▲원서마감: 9월 7일(월) 오후 5시30분
 - ▲원서교부 및 접수: 서울·용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외 대 학 보

외대동수



자동차문화의 21세기를 열어가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넓고 아름다운 자동차 문화를 위해—

현대자동차서비스는 4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함을, 사회에 풍요로움을—
현대자동차서비스는 4대사업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자동차문화를 꽃피워 갑니다.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위한 자동차판매사업—
좋은 품질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부품판매사업,
판매 이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차량정비사업,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증정차량판매사업—

자동차에 대한 4대사업으로
고객의 안전과 함께 하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인간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인간을 위한 서비스, 자동차를 통한 사회봉사의
이상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판매

차량정비

부품판매

증정차판매

현대자동차서비스(株)

87년 분열에서 얻은 통일단결의 교훈

채 만 수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민족민주운동의 전사(前
사)

관절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을 달
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새롭게 확립된 것
은 대략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
일반론으로 말하면, 한편에서는 한
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제
모순의 전반적인 격화의 반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60년대 이래 70
년대를 통해서 환경에서 비롯해서
자기를 확대시켜온 학살운동을 위
시한 진보적 지적인 운동과 70년
대 말엽 노동운동의 분기 이후 새
로 성장하기 시작한 자주적 민주
운동의 발전의 결과이다.

누구나 큰 이견없이 인정하는 것
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민족자주
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
중의 자주적 운동은 50년대 초의 전
쟁과 그 이후의 광적인 매카시즘
속에서 침묵하게 압살되고 해체되
었다. 그러나 의식 있는 인간으
로 구성된 역사와 사회의 발전은
고인 물처럼 머물러 있을 리는 없
는 것이었다. 50년대의 약화와 실
정으로 특히 격화된 전반적 모순은
민중적 저항의 폭발을 준비하고 있
었고, 자유당 정권의 권력연장을
회화한 '3.15 부정선거'는 그 폭발
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때
마침 세계공황의 파도의 속에서 세
계적 패권을 쥘까하면서 세계적
정세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처지
에 있던 미국은 민중항쟁이 일어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최소한 방관하
였다. 그리하여 민족운동 재생의
계기를 마련되었다. 4월혁명이다.

박정희, 김종필 등에 의한 5.16
군사 쿠데타가 민중의 승리를 유린
하고 세력을 성장하기 시작한 민중
의 자주적 운동을 억압하였지만,
민중의 지극한 운동에서 '세배받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
하여 '순교'해 갔으며 완강히 저항
하면서 70년대 말에는 박정희의 억
압체제를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부마민중항쟁이다. 그리고 80년 5
월의 광주민중항쟁과 전두환, 노태
우 정권들의 정치군부에 의한 민중
운동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학
살의 태풍에 외국인이 있었다는 의
혹을 남긴 참이었던가 동태했던 두
정권이 권력을 차마로 정악하고 승
계한 것은 특히 흥미있는 유사절이
다.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 및 그
치열한 패배와 함께 민족민주운동
의 전사(前사)는 끝났는데, 이 시
기는 민족민주운동의 그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제반의 주체적 역량과
재판적 조건들이 형성되고 성숙해
간 기간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족
민주운동의 행하는 특히 그 주체들
의 정치사상적 미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민족민주운동의 성립과
전선운동의 출발

5월 민중항쟁과 그 치열한 패배

87년 대선을 앞둔 시기의 민통련 및 국본에서의

후보전술 논쟁, 89년 전민련 내의 합법정당

논쟁들은 전선운동의 분열로 귀결

는 6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민중의 새로운 운동에 일대의 전환
점을 되었다. 치열한 패배 그리고
그 압살한 공포와 좌절은 80년대
초반 한 때의 어둠의 고요를 조성
했지만, 동시에 민족적 저항의 정
당성과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잠재시키고 억압된 형태에서이거

상 민족민주운동이 정치사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분화 혹은 분열
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당시 이것
들은 대개 '분산'으로서 의식되고
고, 거기에서 이 분산의 통일이라
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기되었다.
거름 우리가 전선운동이라는 개념
으로 표상하고 있는 부분·계층간
및 지역간 운동의 조직적 연합운동
이다.

민족민주운동의 성립과 다른

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직 내부의
사상적 분화의 분화 때라서 동시에
발생하는 조직의 분열을 재통합하
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였다.

이 두 가지 사정은 때로는 서로
영여서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 성
격이 다른 태세로 알 수 있는 것
처럼, 조직 재편 혹은 재건의 양태
가 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객관적인 상황, 특히 정치 상
황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선운동의 불안정성의
요인들

전선운동 혹은 연합운동은 무엇
보다도 운동이 정치사상적으로 그
리하여 조직적으로 분열(혹은 분
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열은
역사적인 현실이다—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그리고 이 분열되어 있는
조직의 주체들이 새로운 통합을 요구
하고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합은 분열 자체를 해
소하여 버리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
라 분열 위에서는 통일이다. 따라
서 전선운동 혹은 연합운동은 분열
과 그것을 전제한 통일이라는 독특
한 모순적 통일이다. 그리고 이러
한 독특한 모순적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통일이 참가하는(분열
된) 조직들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정
들이 그 동안 전선운동에서의 조직
적 불안정성의 근원점이다.

우선, 전선의 조직이 형성된 이
후에 새로운 결성체로 나오는 단체나
조직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조직
들을 민족민주운동이 아직도 초기
의 발전단계에 있다는 사정을 반영

그런데 차레

1. 87년 이전까지의 합법정당과 통일전선 운
동의 교훈
2. 87년 국민운동 본부에서 92년 전국
연합 건설까지 전선절서 재편 논쟁
3. 대선을 앞둔 합법정당 건설 논쟁의 비판
적 검토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방향

다, 따라서 전선조직 그것의 재편
을 필요로 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들 신생조
직과 기존의 전선조직의 사이에 정
서의 기러기와 있고 또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
라,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전선
조직의 주도력이 특정한 정당으로
경사되어 있다고 하는 사정에서
단순한 것이다. 즉, 이들 신생조
직들이 결합을 회피하고 새로운 통
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동시에 기
존 조직의 성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민통련'으로부터 '전민련'으로, 그
리고 다시 '전국연합'으로 모습을
바꿔 왔던 사정의 하나이다.

기존의 전선조직의 주도적 혹은
지도력이 특정한 정당으로 경사되
어 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운
동의 수를 혹은 그 역사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초 우리
운동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
하여 계급적 운동의 성격이 희석된
것 '전민련'의 지적인 운동으로 출
발한 측면이 강했고, 즉 전민련 소
부르조아 계급의 민주화운동으로
의 성격이 강했고, 따라서 그 주도
력이 불가피하게 그들의 편에 있

것으로 작용해 왔다. 그 갈등들이
이러한 형태로 폭발한 대표적인 사
례를, 즉 전선의 분열로 귀결된 사
례를 1987년 대선을 앞둔 시기
의 '민통련' 및 '국본'에서의 후보전
술 논쟁, 89년 5월부터 시작되어
90년 3월의 제2차 대의원 대회에
서 정점에 달했던 '전민련'내에서의
이분파 '합법정당' 논쟁'등이며,
지금 다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
국연합'에서 '후보전술' 논쟁'으로
새로운 폭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폭발—분열은 언제나 지도
부 다수를 차지하는 쪽의 '통일·단
결전' 방침의 수반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주도되고 야기되어 왔다.
결국 분열로 귀결된 수밖에 없는
통일·단결의 주장/ 그리고 사실은
대체없는 분열의 주장이다. 그것은
전선조직 혹은 연합운동의 조직이
란 분열 위에 수를 전제로 하는
통일·단결이란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발전하
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분열을 가
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일·단결의 독자성이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 독
자성의 분열은 답박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통일·단결은 불가능하다.

지금 당한 민족민주운동의 대
선 대응에 관련하여 말하면, 우
선 태세는 논외로 하는 '국민회의'
는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확장
된 반민자당 전선으로 되기에는 어
려운 상황이 있다. 그것이 확장된
반민자당 전선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중심
세력들이 그것을 '민자당 집권을
반대하여' 특정한 지지를 하는 전선
으로 만들어는 기도를 포기하고,
전선으로 '민자당' 집권을 반대하는
전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
여 그것을 '민자당 집권에 반대하
나 후보보선에 태도와 방침을 달
리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도 개
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
해서 먼저해야 한 것은 '전국연합'
이 후보전술의 채택이라는 잘못된
방침을 버리고('후보전술'을 떨치
는 제 단체간의) '반민자당 공동
후보전술'을 수립할 전환해야 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연합'



사회 전반에 대중적으로 제기하였
다. 그리고 '운동에 세배받은 사
람들'에게서는 특히 70년대의 운동
을 통해서 강화되었던 '민주화 투쟁'
이라는 협소한 시각 및 일정 정도의
남방성을 일변시키면서 보다 심화
된 운동, 민족민주운동을 준비하게
하였다. 특히 80년대중반 이후 그
동안 억압 속에 자매(諸母)되어 있
던 계급적·민중적 운동의 분열적
으로 운동의 일정에 올랐고, 민족
민주운동이 자기를 확립하게 되었
다.

민족민주운동의 자기확립은 민중
운동의 정치적 이념 및 운동의 목
표에 대한 성찰을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의 실천적 조직적 방
면에 대한 모색도 심화시켜놓았
는데, 그것은 당시 이념 그 본래의
개념으로 의식되지 못했지만 사실

복잡한 과정과 곡절 그리고 논의를
거쳤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온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1991년 12월)에 이르
고, 다시 최근의 '국민회의' 결성
으로 발전하고 있다.

84년 6월의 '민통련'의 결성
혹은 85년 3월의 '민통련'의 결성
이후 불과 7년만에 전선운동 혹은
연합운동은 여러번 그 조직적 틀을
바꾸면서 변화하여 왔는데, 그것은
발전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
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운
동의 조직 및 지도부에 대한 권력
의 침탈이라는 요인을 말해도 한
다. 그러한 조직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연유했다고 말하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 및 자주적 대중운동의 성장에
의한 조직의 외연적 확대의 필요성

한 '법국민대회의'등의 추종이 그
것이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국
민회의'도 그 범주에 속할 수 있
다.

이들 조직은 급변한 정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외연을 확대하
고, 특히 제도권의 유력한 단체 세
력인 야당을 공동의 투쟁 대열로
묶어내는 데에 그 기본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범민중민주운동 내부의 사
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그것들을 추종한 '민통련'이나
'전국연합' 혹은 '국민회의'의 민족
민주운동의 전선조직 혹은 연합조
직으로서의 한계가 동시에 반영되
고, 따라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포함된 것이었
다. 이제 그 문제를 보기도 하자.

대선앞둔 국민회의 건설방향...민자당 집권에 반대하나 후보문제에는 태도와 방침을 달리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도 개방하여야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제조직들과의 이념
적 경향을 달리하면서 등장하는 경
우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조직들
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연합전선에
의 가입이 자기들의 독자성에 입
한 장애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이들 새로운 형성되는 조직
과 단체들을 기존의 전선조직 화와
에 머물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이것이 차츰 분화·발전되면서
여기 경로와 형태로 기본계급—노
동계급으로 주도력이 옮겨가고 있
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 성격의 분화·발전은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들과의 긴장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조
직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기존
의 전선조직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은 87년 대선을 계기로 전이한 '민
통련'의 전향, 즉 분열과 해체의 경
을 겪을 것이며, 논외로 하고 있는 '국
민회의'는 특정한 당파적 경향을
기진 단체 및 개인들의 '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두번에 걸친
'전국연합'의 중앙위원회의 회의
가 '후보전술'을 합의할 수 있
는 사실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
한다.

공 고

제 목:아라바이트 지원서 접수

1992년도 제2학기 아라바이트 지원서를 아래
와 같이 추가 접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 및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
여코자 합니다.

1. 접수기간:1992. 9. 1~9. 30일까지
2.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학생처 취업보도게
(부직 담당)
3. 대 상: 전학년
4.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 우선
권이 부여됨.

1992. 9.

학 생 처

취업정보안내

기 업 체 명	모집 인원	채용 방법	자 격 요 건	접수 기간
(주)크린텍	여명	서류, 면접	영어능력, 회화능력	9월 1일이전
국민경제연구원	0명	서류, 면접	경영학 전공자	9월 5일
대한실업조사	1명	서류, 면접	일본어 전공자	9월 7일
정환상사	1~2명	평가, 면접	영어능력향 학생	9월 2일
현대종합상사	9명추원	서류, 평가, 면접	상경계, 사범이	9월 7일
LG AD	3명추원	서류, 평가, 면접	경영학, 신문방송학	9월 5일
(주)상지원	2명추원	서류, 면접	인문, 사회과학학생	9월 5일
새마을종합공사	여명	서류, 면접	영어 능동자	9월 2일

* 자세한 문의는 학생처 취업보도게로 직접방문하여 문의 바람.

1992년도 외대 출판부 발행도서 안내

1992. 2. ~1992. 8

번호	도서명	저자/편자	판형	판수	가격	비 고
1	FRESHMAN ENGLISH	영어교재편찬위원회	464면	196	4,000원	개정판
2	SOPHOMORE ENGLISH	"	"	212	4,500원	"
3	국어를 위한 한자어	박 수 형	신국판	451	10,000원	초판 1쇄
4	기초 회화	김 기 태	신국판	245	5,000원	개정판
5	사자각 회화	"	"	280	5,500원	"
6	중급 일본어 I	일본어위원회	"	250	5,000원	초판 1쇄
7	중급 일본어 II	"	"	"	근 간	92년9월
8	이해한	이태대위원장	3.6판	1,700	16,000원	개정판
9	한글서체	불어문학회	"	1,494	10,000원	초판 7쇄
10	한글서체사자한글사전	한 영 호	"	1,034	12,000원	초판 4쇄
11	타이거 한국어사전	시 계 만	"	370	6,000원	개정판
12	태극어 한국어사전	태극어위원회	"	근 간	92년10월	
13	기초 한자어 해설	서 계 만	코라운	238	5,500원	초판 6쇄
14	UNIVERSITY COMPOSITION I	영어교재편찬위원회	"	220	4,000원	초판 6쇄
15	한대 인도네시아어 회화	한 영 호	신국판	284	5,000원	초판 4쇄
16	국어학	국어학문교재편찬위원회	"	360	4,500원	초판 3쇄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좋은 환경, 좋은 차——
HD 現代自動車

3798

